

우리가 인간인 이유

정지아

소설가

엄마는 환갑 몇 해 전부터 허리가 아팠다. 아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서 잠을 설칠 정도였으니 아프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이었을 것이다. 아프다고 병원 갈 호사를 누릴 처지가 아니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어 있었다. 척추협착증이었다. 진단만 받고 엄마는 그냥 돌아왔다. 요즘 그 정도 병은 시골 병원에서도 수술로 가뿐하게 나올 수 있다. 그때도 큰 병원에 가서 큰 돈을 들였으면 수술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큰 병원 갈 시간도 돈도 물론 없었다. 엄마는 환갑 나이에 허리가 굽기 시작했다(내 나이 신아홉, 그때는 다 늙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겨우 지금의 내 또래였다).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다. 나는 서울에 살았고, 어쩌다 한번 집을 찾았다. 밤마다 끄끙거리는 엄마 때문에 잠자리도 마음도 불편했다. 그런데도 엄마 병원 모시고 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물 안 개구리였다. 어떻게든 그때 엄마를 병원에 모셨어야 했다. 엄마 칠순 때쯤은 나도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칠순 잔치 해드릴 생각은 하면서 병원 모실 생각은 못했다. 80년대까지 병원은 서민들에게 그만큼 멀었다. 보험이 없던 시절이다. 사보험이야 있었겠지만 자식들 월사금도 못 주는 부모가 솔하던 시절, 사보험 들 생각 같은 건 우리 동네 누구도 하지 못했다. 암 같은 큰 병이 들면 운명이라니, 허리가 굽고 팔다리가 쭈시면 늙은 거려니, 신을 받는 무당처럼 온갖 병을 순순히 제 몸으로 받아들이며 부모 세대 사람들은 고통과 함께 살다 일찍 죽었다.

다행히 엄마는 아직 살아 있다. 척추협착증은 나날이 심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작았던 엄마 키는 척추가 무너지면서 더 쪼그라들어 지금은 백사십 센티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엄마 집에 갔더니 눈이 썩하고 비틀비틀 걸 걷지도 못했다. 괜찮다고만 하는 걸 따져 물었더니 근 보

름째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단다. 누울 수 없으니 잘 수도 없었다. 엄마는 이불 몇 채를 쌓아놓고 거기 기대 잠깐 졸다가 통증 때문에 소스라쳐 깨어나곤 했다. 당장 엄마를 끌고 병원으로 갔다. 대학병원 예약할 새도 없었다. 오래 앉아 있지 못하니 차를 탈 수도 없어서 예약할 수 있었다 한들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시골 병원 대기실에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네들이 사십 명 넘게 대기 중이었다.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엄마는 일어났다 앉았다 수십 번 반복하면서 두 시간 넘게 기다렸다. 진단은 생각대로였다. 척추협착증이 심해서 뼈가 거의 맞닿은 상태로 신경을 눌러 통증이 계속되는 것인데, 워낙 고령에(그때 엄마 나이 여든 넷이었다) 혈압이 높아 수술은 쉽지 않을 거라 했다. 방법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뿐이었다. 매주 두 번씩, 열두 번, 척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시술을 받았다. 큰 병원으로 갈까 고민하다 그냥 시골 병원에서 시술받기로 결심을 굳힌 것은 엄마 같은 수많은 환자 때문이었다. 하루에 수십 명씩 같은 증상의 환자에게 시술을 할 테니 임상경험이라면 서울 종합병원 의사 못지않을 것 같았다. 게다가 좁은 동네라 그 병원에서 시술받다 문제가 생겼다면 소문이 파다했을 텐데,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면 별 탈은 없다는 증거였다.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비 부담도 없었다.

시술받고 나면 두어 시간 병원 침대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다. 엄마 곁을 지키다 처음으로 다양한 노인들을 만났다. 어떤 노인은 당당하게 침대에 누워 요구했다.

“낼 김장할랑게 주사 한 방 놔주세요.”

김장하는데 무슨 주사가 필요할까 의아한 참인데, 간호사는 묻지도 않고 척 링거액을 가져왔다. 엄마도 궁금했는지 물었다.

“할매는 워디가 아파서 왔소?”

“아이가, 아파서 왔대요? 안 아플라고 왔제.”

엄마도 나도 옆 침대 할머니의 말을 단박에 이해하지 못했다.

“기운이 없어가고 짜울짜울 허다가도 요놈 한 방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요. 낼 김장을 백 포기나 해야 쓰는데 워찌끄나 허다가 정신 쪼까 차릴라고 맞으러 왔소.”

아마도 단백질 성분의 링거를 맞으러 온 모양이었다. 할매들의 이야기는 금세 엉뚱한 데로 섰다.

“무신 김장을 백 포기나 헌대요? 자석이 많은갑소이.”

“딸 둘 아들 한난디 서이 다 짐치라면 사족을 못 쓰요. 어매 짐치배끼 못 묵겼다는디 워찌겄소. 죽거나 살거나 담가야제.”

“자석 많아 좋겄소이. 나는 야 하나뿐이요. 썩썩하게 자석들 짐치도 담가주고 월매나 좋

소. 나는 허리가 아파서 한나뿐인 자식, 암 것도 못 해주는데.”

만담 같은 두 노인의 대화를 듣다가 깨달았다. 우리가 아직도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것을, 의료보험이 그런 부모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팔십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생돈이 깨지기 때문이었다. 소화가 안 되면 손을 따거나 체 내려주는 동네 사람을 찾았고, 감기에 걸리면 그냥 앓았고, 이런저런 속병은 쓰디쓴 쑥물이나 약초 달인 물로 대충 다스렸다. 방앗간 벨트에 팔이 잘리거나 낫질하다 손가락이 잘리거나 독사에 물리거나, 아무튼 생과 사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병원은 그럴 때나 가는 곳이었다. 그런데 의료보험으로 병원 문턱이 낮아지니 여전히 가난한 노인네들이 힘없다고 링거를 맞으러 스스로 병원 문을 들어서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국가의 힘이구나, 처음으로 감동했다.

엄마는 올해 우리 나이로 아흔여덟이다. 작년부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엄마는 죽을 때 지나 살아있는 게 부끄럽다며 아흔다섯 넘은 뒤로 문턱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 하루 두세 번 나 잠깐 보는 것, 어쩌다 찾아오는 친한 사람들 잠깐 보는 것이 전부다. 혼자 있는 게 기억력 감퇴에 더 안 좋은 것 같아 고민하던 차에 누군가 요양등급 신청을 해보라 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부모 세대처럼 병원이라면 질색팔색하는 터라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당장 요양등급 신청을 했다. 안내도 절차도 매우 간단했다. 엄마를 지정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관건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죽을 날이 진작 지났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라며 딱 잘라 거절했다. 설득을 하다가 안 돼서 별수 없이 뺨을 쳤다.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돈을 준대! 나 돈 좀 법시다.”

“살다보게 벨 일이 다 있다야. 나가 늙어서 아픈 것인데 정부가 돈을 준다고야?”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던 엄마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스템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것이다. 가난해서 세금조차 별로 내본 일 없을 전직 사회주의자가 부자들이 많이 낸 세금의 덕을 본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딸이라면 껌뻑 죽는 엄마는 딸 돈 벌게 해줄 요량으로 삼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차를 타고 읍내 병원에 갔다. 잘 걷지도 못하는 데다 약간의 치매기가 있어 당연히 요양등급을 받았다. 요양보호센터와 상담을 하면서 또 깜짝 놀랐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까지 복지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센터 소장이 나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물품 목록이 있는 카탈로그를 주었다. 모션베드나 휠체어, 이동식 변기 같은 건 놀랍지 않았다. 요실금 팬티며 기저귀, 미끄럼 방지 양말은 물론 미끄럼방지 패드, 늙은 엄마를 모시는 나도 생각지 못했던 물품까지 본인 부담 이십 퍼센트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런 게 문케어구나, 감동하기 앞서 죄의식이 먼저 몰려왔

다. 늙은 엄마가 혹 넘어질까 집안 구석구석 두툼한 카펫을 깔았는데 미끄럼방지 패드라는 신문물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늙은 부모를 둔 자식은 다양한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요즘 하루 세 시간 반씩 주 5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한다. 지난해 말, 갑자기 바빠져 집 비우는 날이 많았다. 평소였다면 혼자 있는 엄마 걱정으로 서울이든 포항이든 당일치기로 다녀왔을 것이다. 상황이 안 되어 하룻밤 묵게 되어도 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나만 목 빠지게 기다릴 엄마 생각에 좌불안석이었겠지. 하루 세 시간 반은 보호사님과 함께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형제가 많은 적든, 한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일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도와주는 것, 이런 게 복지구나. 태어나 처음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았고, 국가라는 추상이 구체적 실물로 다가왔다.

자연은 냉정하다. 동물의 세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들은 가차 없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한다. 그래야 냉정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다른 개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 누가 늙고 병들어 자식의 신세를 지게 될지 알 수 없다. 나는 절대 아프지 않을 거라고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불행이기에 인간은, 아니 유일하게 인간만이, 장애나 정신질환, 노환과 같은 질병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런 의료복지마저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기고 싶은 모양이다. 시장의 자유경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류는 지난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다. 자유경쟁에 모든 것을 맡겼던 자본주의 초창기, 일곱 살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하루 열두 시간씩 노동했고, 일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갑자기 대도시로 몰려드는 바람에 주택 가격이 오르자 노동자들은 빨랫줄 같은 줄에 팔을 걸고 선 채로 선잠을 잤다. 19세기 초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평균수명은 27세였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경쟁의 민낯이다.

인류는 자유경쟁의 잔인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독점규제를 비롯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했다. 그런데 다시 19세기로 돌아가자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게 있다면 약육강식이라는, 비정한 자연의 법칙을 이성으로 극복하려 노력한다는 점이다. 자연에서 한번 약자는 영원한 약자다. 토끼는 영원히 늑대의 밥이다. 그러나 약한 인간들은 연대라는 것을 한다. 참다 참다 못 참겠으면, 바꿔 말해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지켜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약자들은 한데 모여 폭발한다. 그게 폭동이고 혁명이다. 신이 내린 왕조차 단두대에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다. 도망갈 구멍은 남겨놓고 쫓으라고.